

2005년 교육부 업무보고

- 머리말 -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장기제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대학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다. 추진과정에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필요하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수도권 대학에 우수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 지방대학을 살려야 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구조조정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학의 학부에 의대·법대·경영대 등이 있는 구조가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분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도 대

학평가기구는 필요하다. 교육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어렵다.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저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는 영역도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책은 교육부가 신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며 올해 대학 혁신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도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챙겨가겠다.